

대련 국제 IT전시회 및 한·중 IT기업설명회

협회 해외사업팀은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 대련시 소재 싱하이컨벤션센터(Dalian Xinhai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중국 대련 International IT Exhibition 2004 전시회'에 한국 최초로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 신인도 및 시장 확대 유도, 우수기술 홍보 및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채널 확보를 위해 참가하게 된 이번 전시회는 유/무선, 이동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관련 국제 정보통신전시회로, 매년 15개국 4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6만여명이 참관하는 전시회이다.

협회 해외사업팀은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키 위한 행사의 일환으



로 26일 싱하이컨벤션센터 회의장(대회의장1, 소회의장1)에서 '한·중 IT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중국 대련시정부 신식 산업국, 청도시 신식산업국, 요녕성 MIC, 대련시 신식산업국, 대련시 CCPIT분회 등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 중국대현그룹, 중국화룽그룹 및 대련 S/W파크 20~30개 IT기업체가 공동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발표(ETRI)'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관 참가업체 (6개사) 및 중국 IT 기업(2개사) 설명회, 현지 정보통신 중소기업과의 Business Meeting을 주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문의는 협회 해외사업팀(02-580-0582-4)으로 하면 된다.

제21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제9회 정보통신 포럼 한국통신하이텔(현 KTH) 사장,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협회에서는 오는 9월 17일(수) 오전 7시30분부터 하얏트서울호텔 로터스룸에서 '제21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사장, 삼성SDS 사장을 겨친 후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제16대 국회의원이자 亞-美정책포럼 통신기술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남궁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 연사로 참석 'IT산업활성화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기한은 9월 16(화)일 까지, 문의 및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외협력팀(www.kait.or.kr ☎ 02-580-0566)으로 하면 된다.